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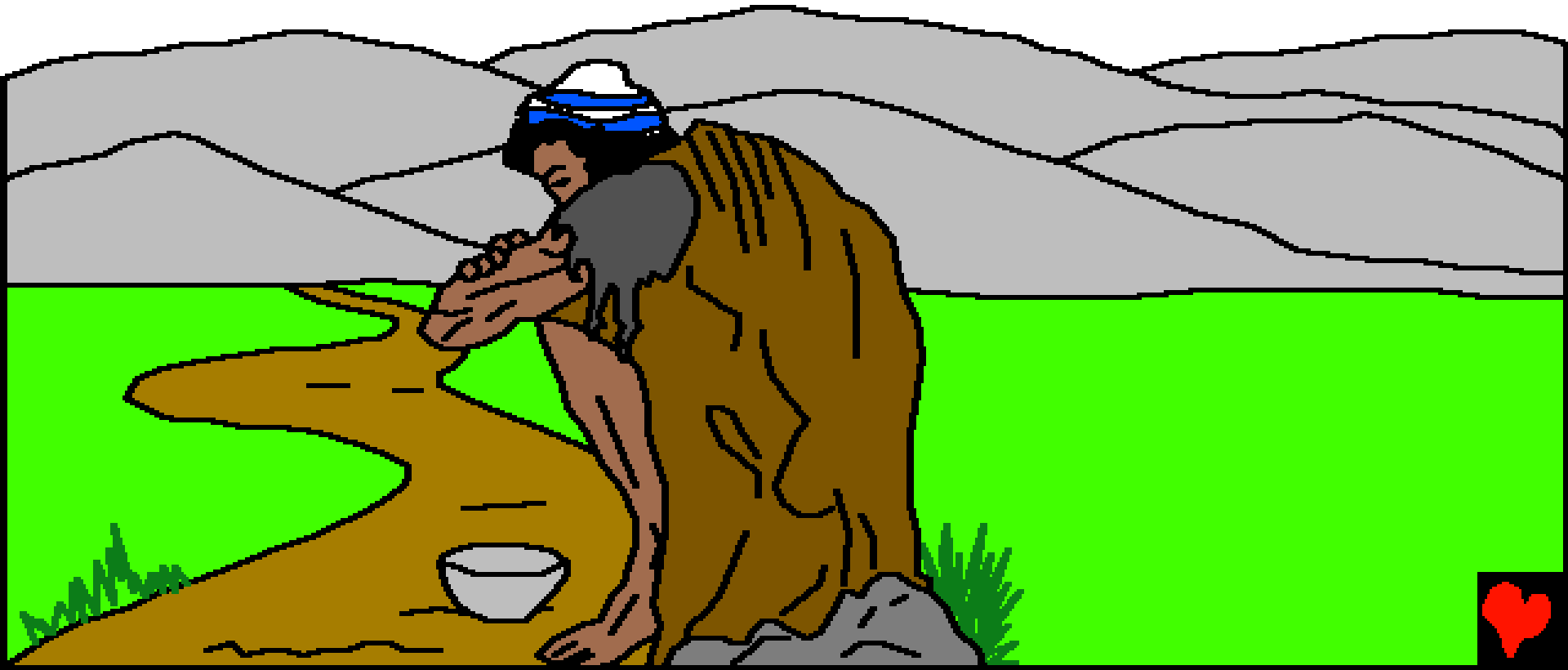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11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바디매오라는 소경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동전이나 음식 부스러
기를 그에게 던져 주었지요.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매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바디매오는 큰 무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곧 그 일이
뭔지 알게 되었지요.



나사렛 예수님이 마을에 오셔서 큰 무리가 예수
님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붙잡히 여겨 주세요!” 바디매오는 소리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이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을까요? 아마 주님이 자신과 같은 소경과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어서였겠죠.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며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
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고
바디매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이 거리
를 지나가지 않을 지도 모
르니까요.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안간 힘을
써 보았지만 주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
들에 의해 둘러 싸여
있었어요. 더구나 다
른 사람들이 “쉬-윳
!”하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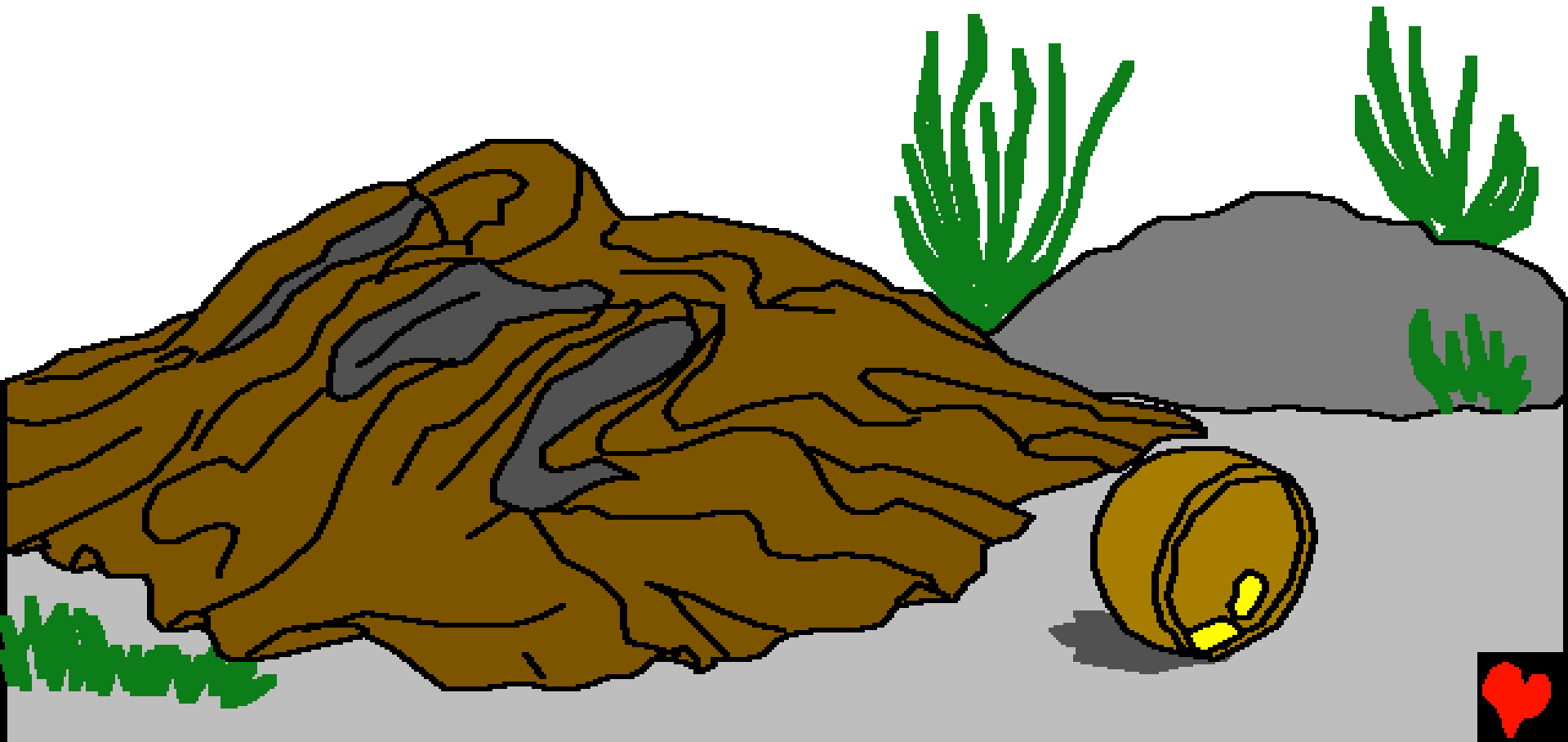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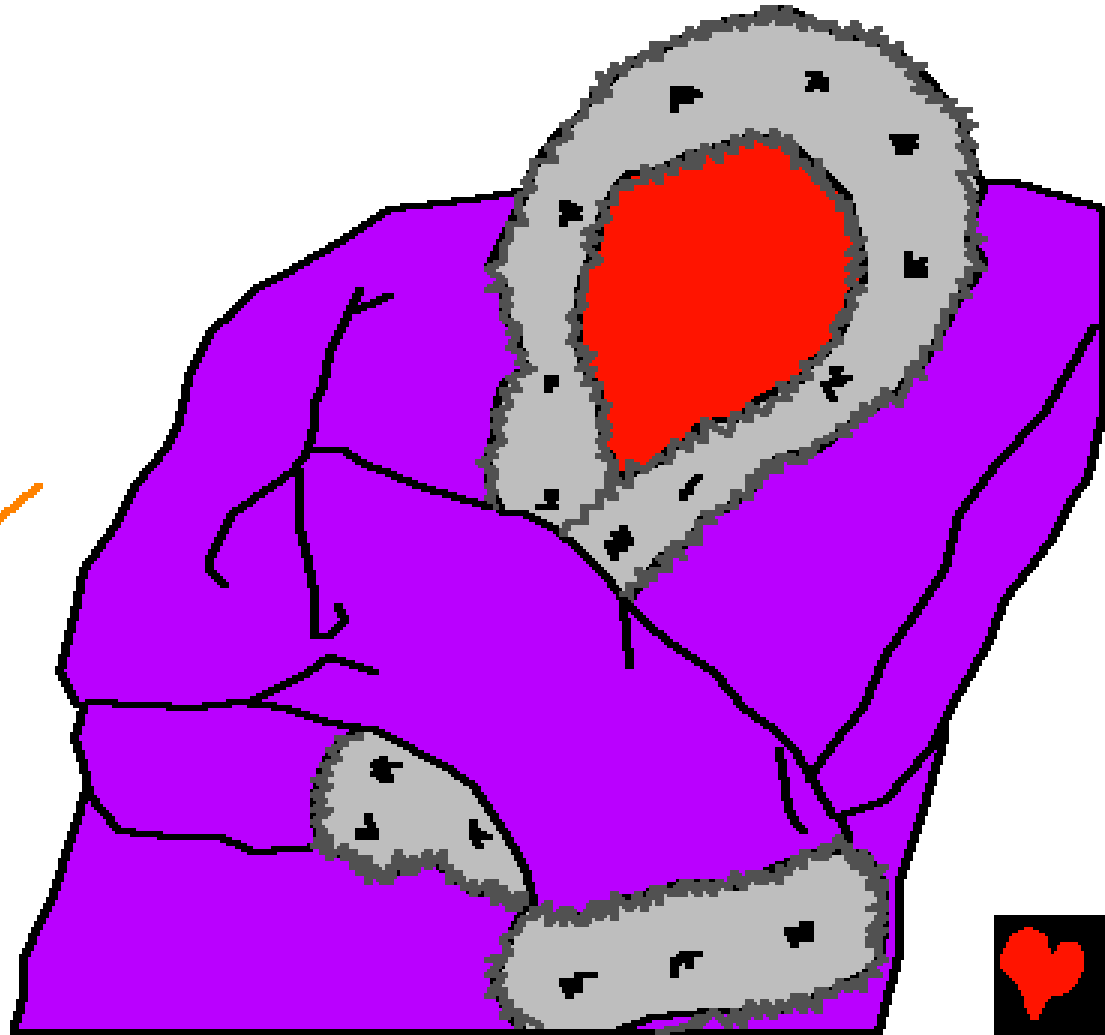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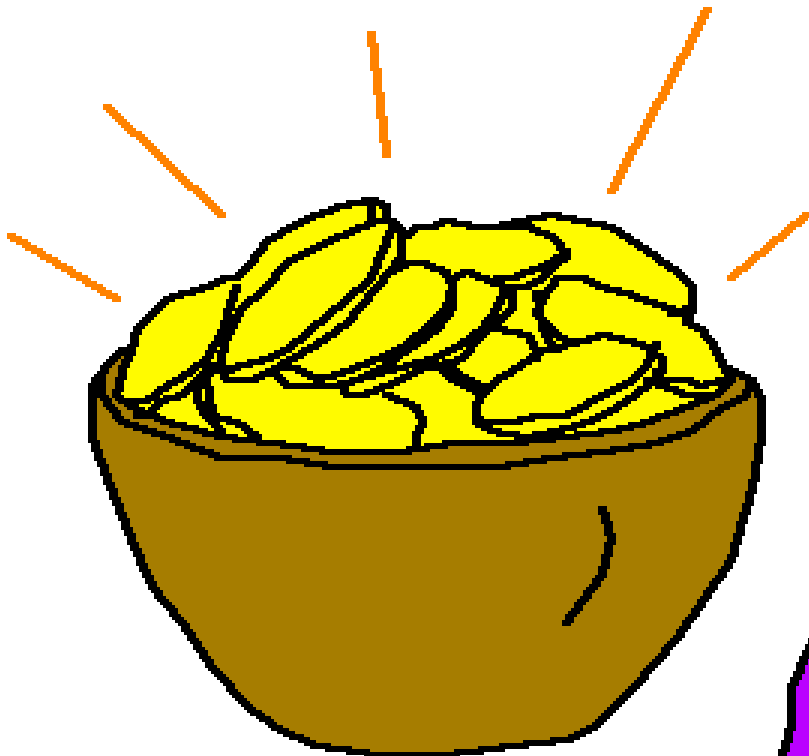
그러나 바디매오는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의 소리를 듣고 멈춰서시더니 소경인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디매오에게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라고 말했어요.



바디메오는 겹옷도 던져 둔 채, 주님께 달려 나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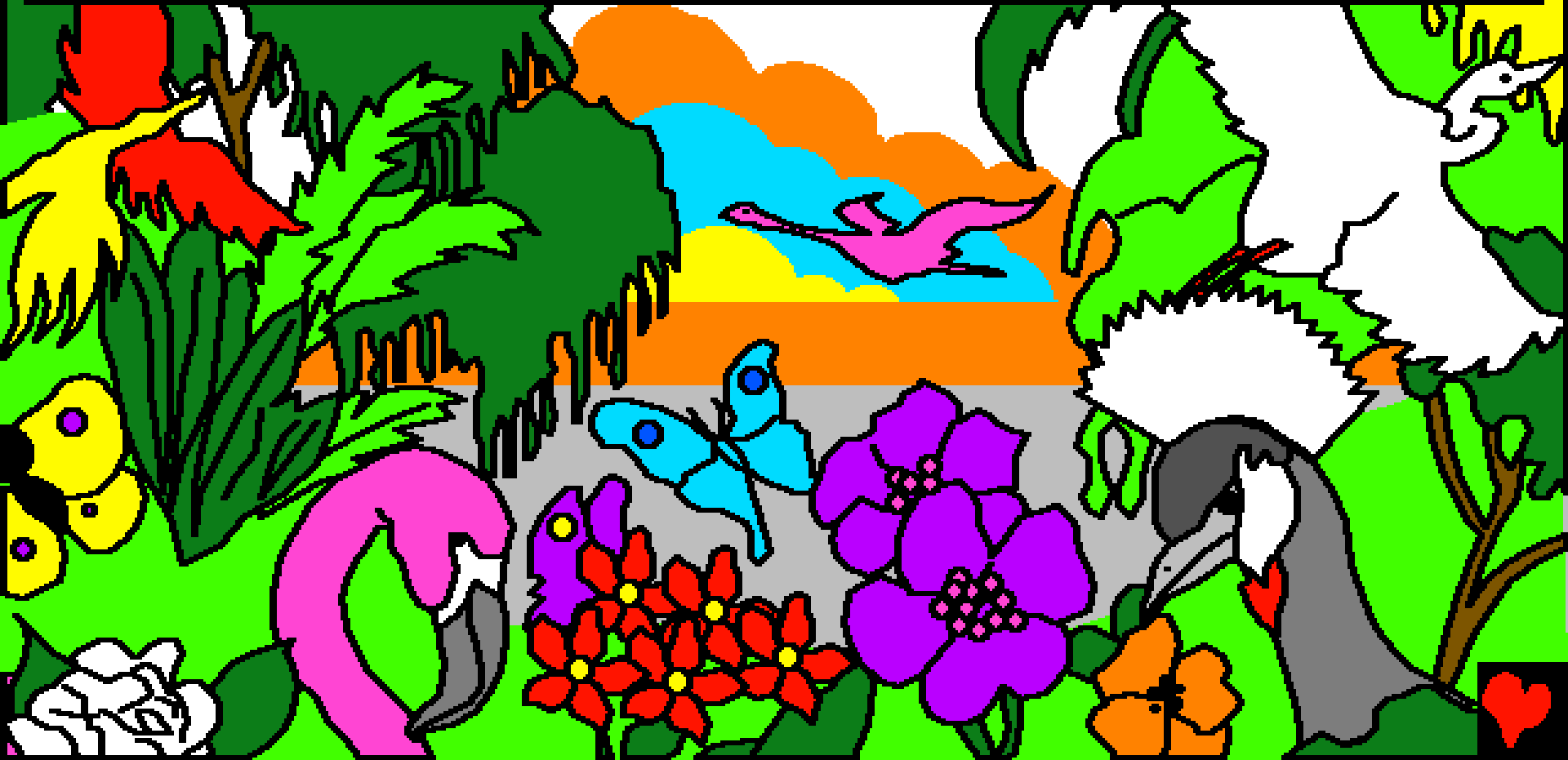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많은 돈이나 좋은 옷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과연 이것이 바디매오가 요구한 것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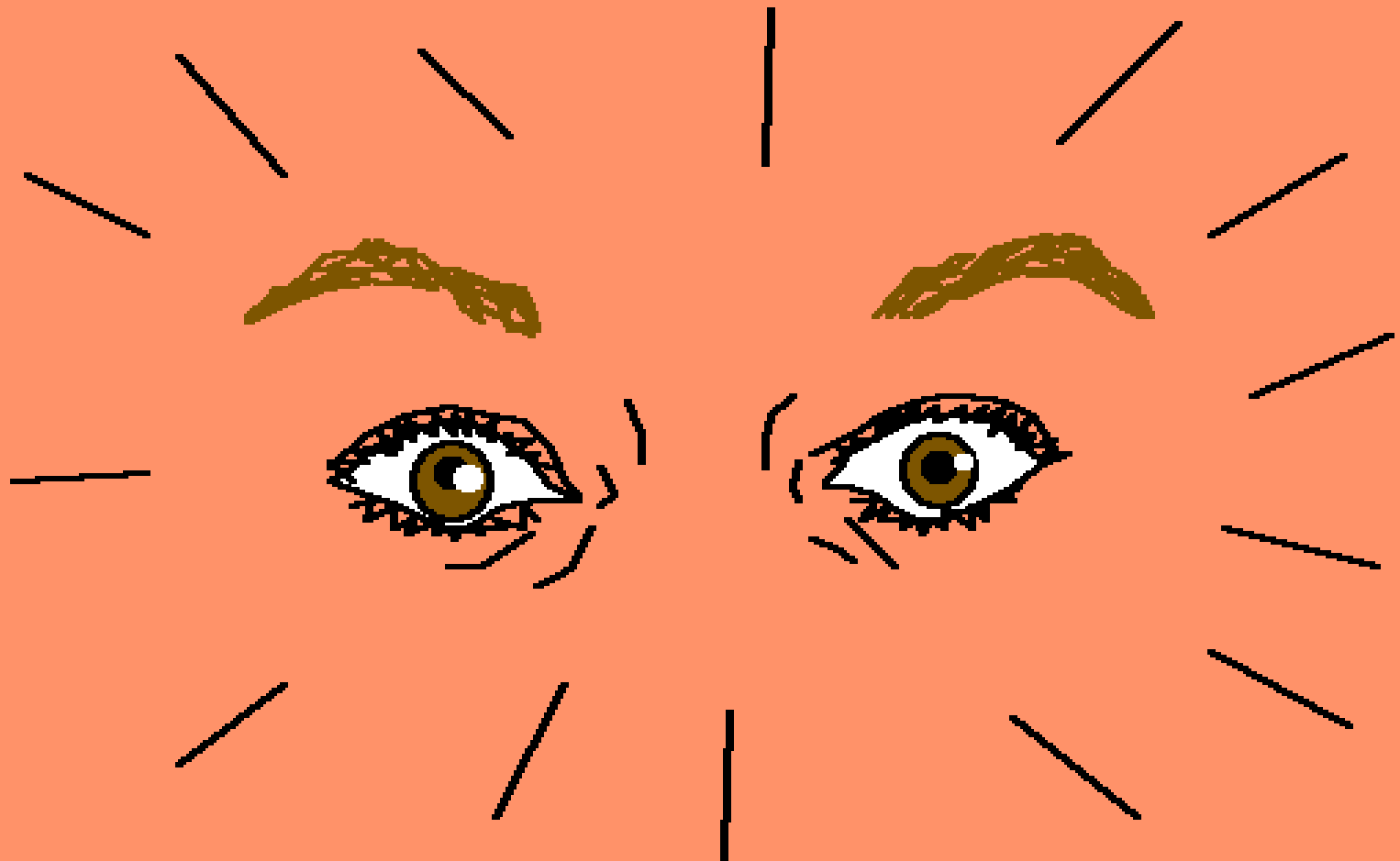
당연히 아니죠. 소경이었던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금이나 좋은 옷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원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주님,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바디메오는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나무와 새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들을 말이에요. 또한 그는 이제 더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바다매오는 다
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어요. 바다
매오의 입에서는
“위대하신
주님, 나를
고치셨네!”
하는 찬양이
절로
나왔지요.
정말로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셈이었지요. 그 불
쌍한 소경 바디매오가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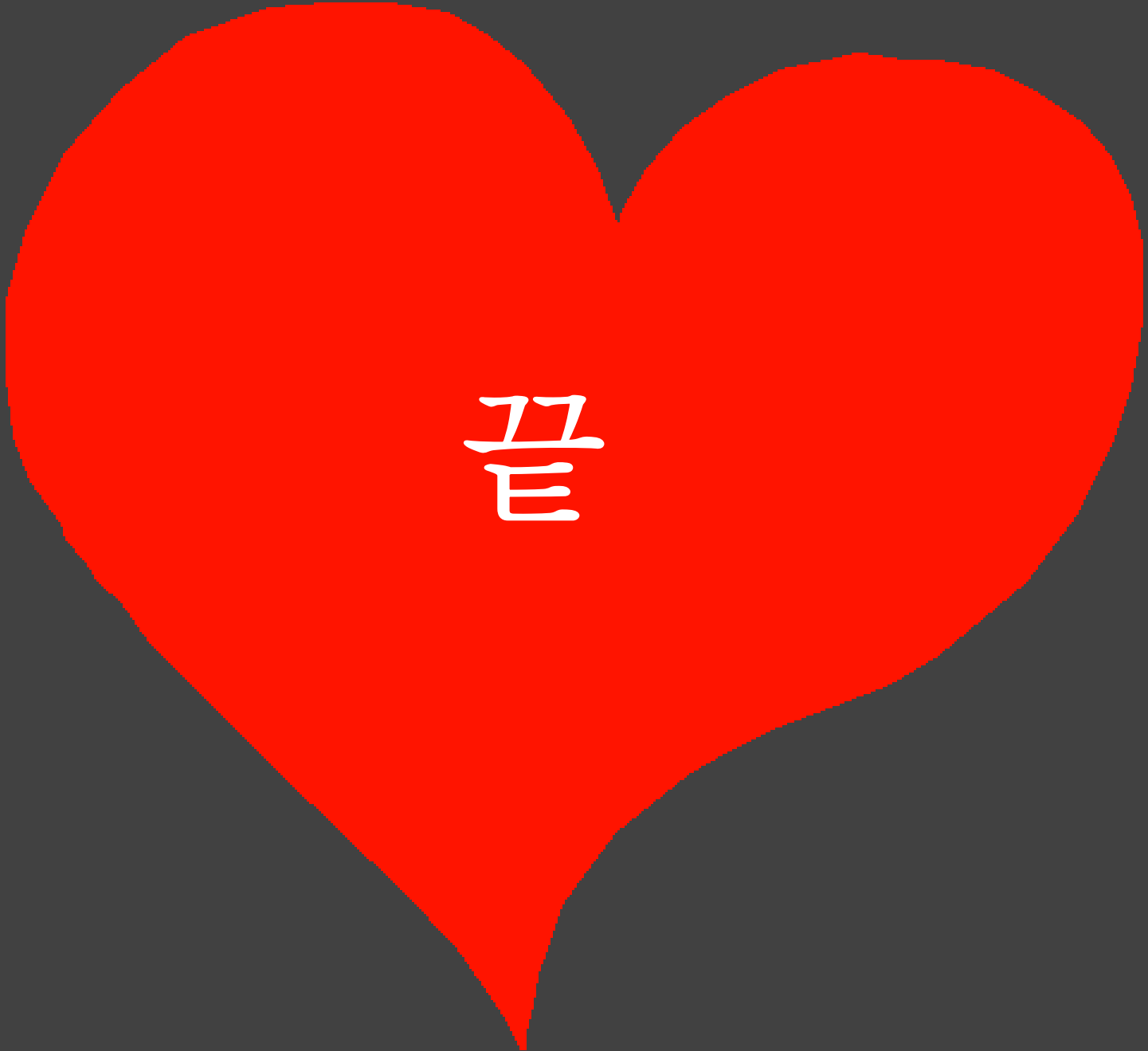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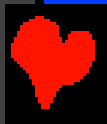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